

코스피, 낙폭 키워 한때 3900선 붕괴…6.16% 급락

코스닥도 하락...사이드카 발동 후 4000선 가까스로 방어
외국인 투자자 '매도 폭탄' ...환율 상승·원화 약세로 이어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폭탄'에 코스피 등 국내 증시가 한 때 폭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또다시 100 포인트(p) 이상 빠져 4000선에 턱걸이했고, 외국 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1450원대 로 치솟았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보다 1.61% 하락한 4055.47로 출발했다. 이후 장 초반부터 하락을 거듭해 오전 9시 46분께에는 '매 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의 급등, 급락이 현물 시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코스피 200선물이 전일 종가 대비 5% 하락세를 1분 이상 지속할 경우 발동된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은 미국발 관세 여파가 영향을 미친 지난 4월 7일 이후 7개월 만이다.

코스피는 장중 전 거래일 대비 6.16% 떨어진 3867.81을 기록한 뒤 다시 낙폭을 줄여 4004.42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크게 출렁인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이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2조 5181억원을 순매 도했다. 앞서 지난 4월 2조 2159억원을 순매도하 며 코스피 지수를 100포인트 이상 끌어내린 것보다 큰 규모다.

코스피 지수가 짧은 기간에 대폭 상승하면서 외 국인 투자자들의 차이 실현이 늘어난 데다, 미국 나 슥에서 주요 인공지능(AI) 관련주가 급락하면 서 전반적인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결국 지난 3일 코스피 지수가 4200선을 돌파한 지 이틀만에 장 중 3800선까지 밀려났지만, 장 후 반부에 상승 흐름을 타 4000선은 가까스로 사수했 다.

장 후반부 상승 흐름에는 개인 반발 매수세가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이드카 발동 등 증시 폭락 추세에도 개인 투자 자들은 2조 5658억원 순매수하며 코스피 지수를 다시 견인한 반면 기관은 790억원 순매도하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날 코스닥 시장도 오전 10시 26분께 매도 사이 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8월 5일 이후 15개월 만이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에 장중 871.79까지 하 락했지만, 이후 서서히 낙폭을 줄여 901.88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던지면서 순매도 세는 원·달러 환율 상승 및 원화 약세로도 이어졌 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세가 강하면 매도자 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달러 등 외화 수요가 증가 하는데, 이로 인해 원화 가치가 낮아져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1445.3원으로 시작해 전거 래일 종가 대비 11.5원 오른 1449.4원에 주간 거 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450.0원까지 치솟았는 데, 이는 지난 4월 11일(1457.2원) 이후 가장 높 은 수준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코스피가 급락한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117.32포인트(2.85%) 내린 4,004.42에, 코스닥지수는 24.68포인트(2.66%) 하락한 901.89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김이 ‘효자’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역대 최고

9월까지 6억6천만 달러 15.3% ↑
김 수출액 3억3천만 달러 22.4% ↑

전남 김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6억 642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억 7617만 달러)보다 1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수출액 증가율(8.2%)의 두 배 수준이다. 품목별로 수산식품이 전년보다 18.1% 증가한 4억 2163만 달러를 기록했다. 쌀과 배·파프리카 등 신선 농산물은 7386만 달러, 음료와 유자차·과자류

등 가공식품은 1억 741만 달러를 기록했다.

김은 수출 증가에 특목한 역할을 했다. 김 수출액은 3억 3744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2.4% 증가했는데,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50.8%)을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1억 6767만 달러(전년비 11.1% ↑), 미국은 1억 2095만 달러(11.8% ↑), 중국 1억 314만 달러(15.7% ↑), 대만 3294만 달러(3.9% ↑) 등 대부분의 주력시장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으로의 김 수출은 전년보다 8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국제행사와 연계한 수출 시장 다변화로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다양한 국제 식품박람회에 참여, 홍보관 운영을 통해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양대노총, 국회·정부에 촉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5일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제도적 불일치로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이 발생해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정년연장TF를 출범해 7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으나, 노사 간 합의에 맡긴 채 소극적 의지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양대 노총은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과 약속한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며, 하반기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경영계 등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7급 공무원 채용 지방대 추천 몫 늘린다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지침’ 개정
추천인원 상한 폐지...내년부터

정부가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역 소재 대학의 추천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추천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합인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역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아 시험을 거쳐 선발하는 제도다.

이때 대학별 추천 몫은 기존 8명에 대학 정원에 비례해 추가됐는데, 기존에는 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되던 것을 500명당 1명씩 추

가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최대 12명으로 제한했던 추천 인원 상한도 폐지해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를 늘렸다.

인사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되더라도 통합된 정원에 맞춰 추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추천 기준은 다음 달 지역인재 7급 모집 공고에 포함돼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시행된다.

인사처는 아울러 예규 명칭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하고, 지역인재 수습 직원에게도 특수지 근무·위험 근무·특수 업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수능 안전” 광주시 종합대책 가동

광주시가 수험생이 실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5개 분야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교육청·경찰·소방 등은 시험 당일 ‘수능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오전 6시부터 7시30분까지 38개 노선에 시내버스를 80회 증편하고 시험장 주변에 자원봉사자 등 490여 명을 배치한다. 교통약자 전용택시 무료 수송을 사전 예약(1688-2222)으로 지원하고, 경찰은 순

찰차 69대와 오토바이 6대로 긴급 수송을 돕는다.

소방은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시험장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마쳤고 시험장별로 전문 구급 요원을 배치한다.

소음 관리는 3일부터 12일까지 공사장 점검을 병행하며, 영여 듣기평가 시간대(오후 1시10분~1시35분) 생활·교통 소음을 통제한다. 기상 악화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지진 가속도계와 예·경보시스템을 점검한다. 시험 종료 뒤엔 변화가 중심 인파 안전과 청소년 아웃리치도 병행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갑덕(421105-2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대자로 55, 308동 1404호 (운암동, 백산블루밍메가씨티아파트)
- 피상속인 망 김갑덕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단4617호로 신청하여 2025년 11월 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 반환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11월 6일
- 상속인 : 최인숙(670722-2XXXXXX) 나주시 대호길 45-17, 101동 403호 (데호동, 호반리젠시빌)
- 신고기간 : 2025. 11. 6. ~ 2026. 1. 16.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최인숙의 주소

분 실 공 고

-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19 운암산공원우미린리버포레 105동 2003호
- 계약자 : 이 경 은
-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 2025년 11월 6일

先州日報

지국안내

- | | |
|-----|---|
| 북구 | • 동 266-1920 • 문 266-1990 • 북광주 525-3761
• 신 222-9171 • 영 222-9169 • 오 266-7801
• 통 433-1503 • 우 신 433-1503 |
| 동구 |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동 양 222-9054 • 통 222-9171 |
| 남구 |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통 신 673-6836
• 통 하 675-6605 • 진 월 671-7278 |
| 서구 |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온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통 안 603-0311
• 화 정 369-1625 |
| 광산구 | • 온 남 952-1687 • 월 국 959-1920 • 천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